

# 멕시코 건설시장 및 부문별 현황

(2010. 7. 23)

멕시코시티사무소

## 1. 일반 건설시장 현황

- 멕시코의 경제는 최근 미국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 플루 영향으로 멕시코 경제의 견인차인 제조업이 부진을 겪었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도 타격을 심하게 받아, '09년 경제성장률은 조사 이래 최악인 -6.5%를 기록하는 등 건설경기의 침체를 야기함.
- 그러나 '10년 상반기 외환보유고도 연초대비 200억불 늘어난 980억불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회복에 따른 외환소득 또한 증대하고 있으며, 국제유가도 작년대비 상승세에 있어 연방전력청(CFE), 국영석유공사(PEMEX) 등의 발전설비, 정유시설 등 산업설비 건설 발주가 가속화 되는 모습임.
- 칼데론 정부의 도로, 철도 그리고 항만 등의 교통 인프라 건설 사업도 가속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으로 대부분의 사업을 민관공동투자(PPP) 또는 BOT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최근 FTA 체결국의 기업에게만 제한되었던 각 발주처의 입찰 제도가 미체결국도 참여가 가능한 Open Bid의 발주가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연방전력청(CFE)은 '10년부터 발주하는 프로젝트에는 입찰 참여 제한을 두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멕시코 건설부문 성장률 및 비중

연도	2007	2008	2009	2010.6
성장률(%)	2.1	2.1	-7.5	3.6*

자료원 : 통계청(INEGI), \* 추정치

- 멕시코 건설 시장 규모는 약 1,100억불 규모로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과 인프라 확충사업,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급증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08년 하반기부터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성장둔화가 '09년에도 이어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으나, 경기회복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10년 건설시장은 약 4%대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SOC 투자규모를 '12년까지 2,500억불을 투자해 GDP의 5.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동 계획에는 약 300여개의 중점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주요 10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미국 뉴욕,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8월초 한국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 멕시코의 국가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의 목적은 2012년까지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 인프라 경쟁력 1위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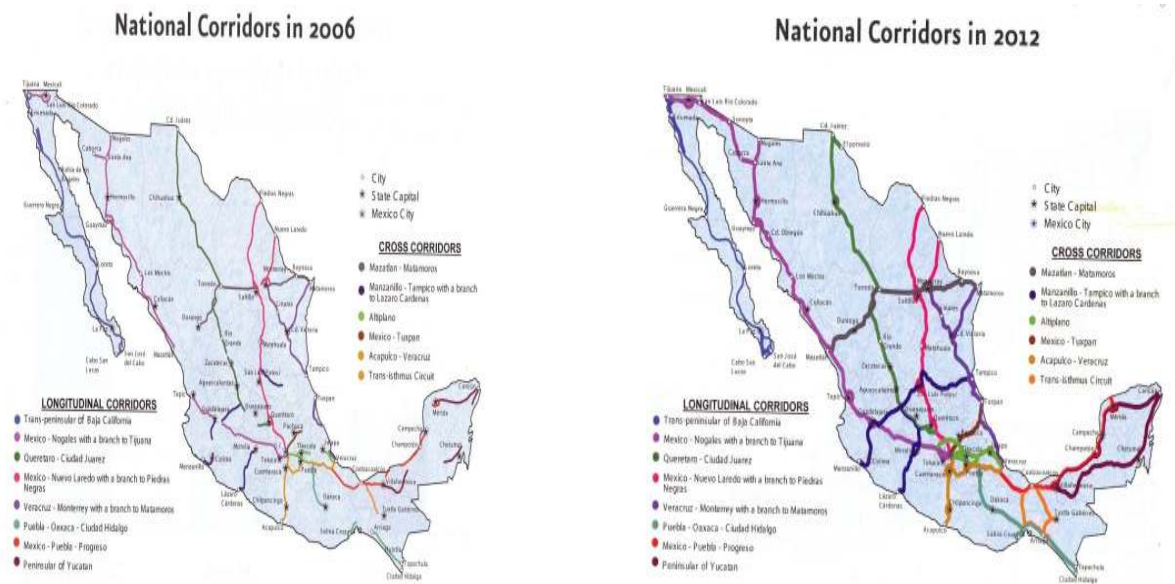
## 2. 부문별 현황

### □ 도로, 총 250억 달러 투입 예정

- 도로 인프라 구축의 주요 목적은 주요 도시·항구·국경·관광지를 연결하는 기간 도로망을 구축해 도로 현대화를 실현

하는 것과 지방 간 도로를 설치해 지방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것임. 또한 교통사고율 감소와 우회도로 및 진입로를 보충해 차량 운행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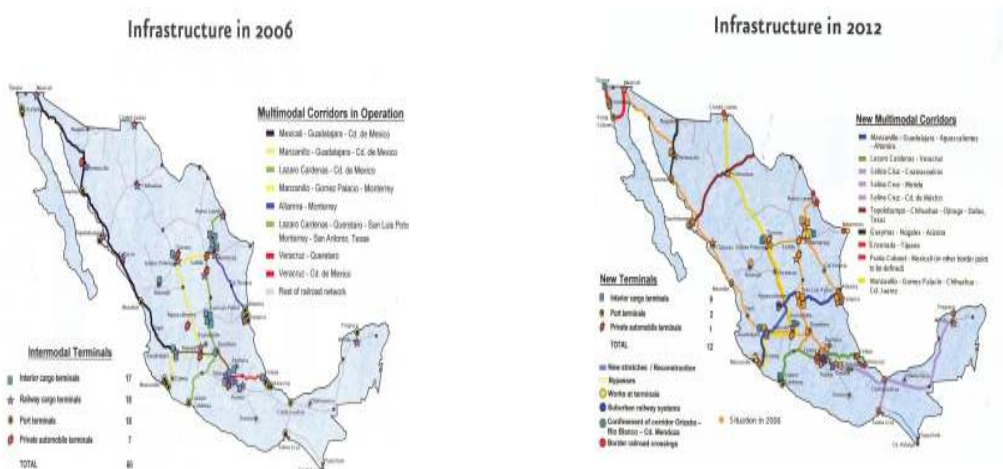
- 2012년까지 구체적 실천전략은 총 1만 7,598km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연방 고속도로 운행율을 72%에서 90%까지 확장하는 것임. 또한 교통사고율을 0.47명/백만km에서 0.25명/백만으로 축소하는 계획 등이며 동 기간중 총 250억 달러의 예산(민관공동투자, PPP 사업 포함)을 투입할 계획임.
- 새로 건설될 주요 고속도로는 치와와(Chihuahua)항-후아레스(Juarez) 고속도로 연결 구간 42km, 콤포스텔라(Compostela)-바야르타(Vallarta)항, 오아하까(Oaxaca)-우아툴코(Huatulco) 간 고속도로 등이며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교통통신부(SCT)는 이외에도 고속도로·국도·지방도로 개보수 공사 520건이 예정돼 있다고 밝히고 있음.



자료원 : 멕시코 대통령 비서실

## □ 철도, 총 40억 달러 투입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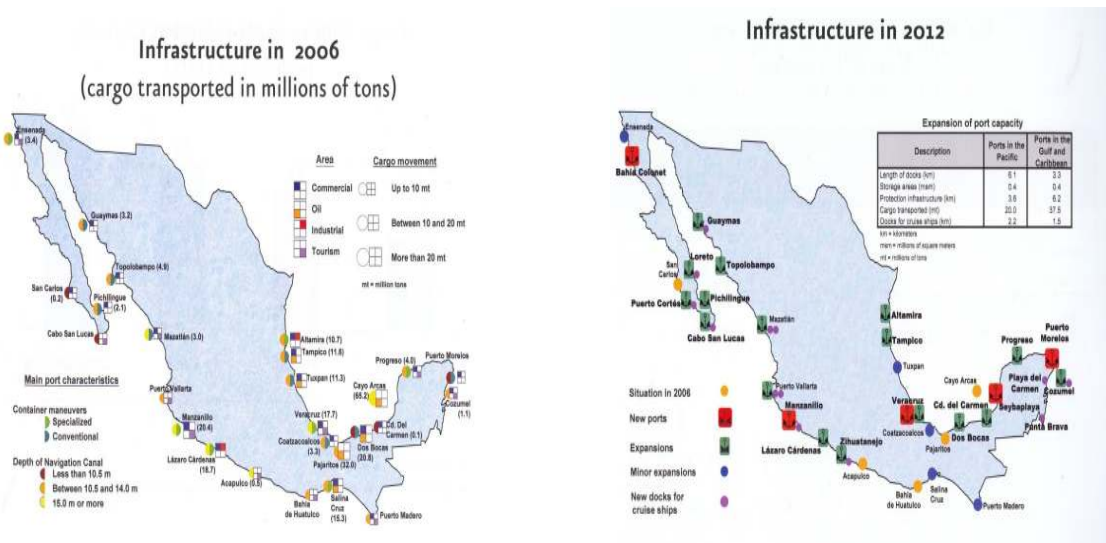
- 철도 인프라 구축의 주요 목적은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항구를 잇는 다목적 철도를 우선 개발하는 것임. 또한 베드타운과 직장·학교를 이동하는 교외승객 운송용 철도 개발과 항만·국경·대도시 지역의 철도 환승문제 해결 등임.
- 2012년까지 구체적인 전략은 총 1,418km의 철로 건설이며, 철도 평균 운행속도를 24km/h에서 40km/h로 개선하는 것임. 또한 멕시코 시티 교외철도(시스템 1, 2, 3) 1단계 공사 착공과 건널목 64개, 표지판 240개, 우회로 3개, 다목적 철로 10개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 40억 달러의 예산(민관공동투자, PPP 사업 포함)을 계획하고 있음
- 치아빠스(Chiapas) - 마야(Maya) 간 철도 재건, 철도 주변 주거지 환경개선, 철도 안전프로그램 개발을 시작으로 부에나비스타(Buena Vista) - 파우띠플란(Cuautitlan) 구간, 마르틴 까레라(Martin Carrera) - 하르디네스 데 모랄레스(Jardines de Morales) 구간, 찰코(Chalco)-라빠스(La Paz)구간의 교외선 건설입찰이 예정돼 있는 등 총 수십억 달러의 공사를 진행할 예정



자료원 : 멕시코 대통령 비서실

## □ 항만, 총 60억 달러 투입 예정

- 항만 인프라 구축의 주요 목적은 컨테이너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항만 인프라 구축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다목적 수송 시스템 항구 건설임.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만 경쟁력 구축과 크루즈 선착이 가능한 항만 개발 등임.
- 2012년까지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신항만 5개 건설, 컨테이너 처리용량 400만 TEU에서 700만 TEU까지 확장, 터미널 컨테이너 처리속도를 68대/시간에서 75대/시간으로 개선, 크루즈 선착장 13개 건설 등이며 총 60억 달러의 예산(민관공동투자, PPP 사업 포함)을 계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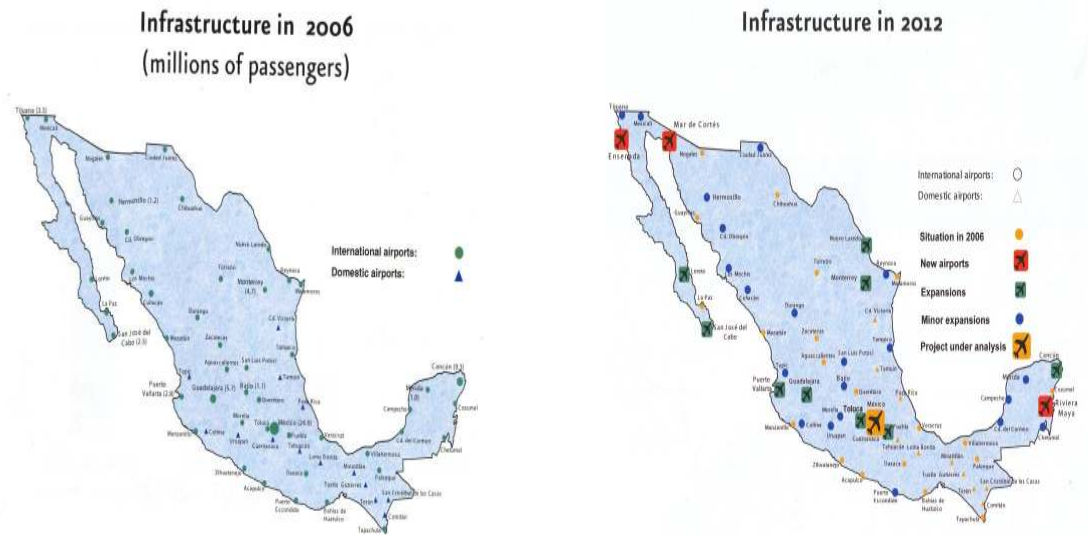
자료원 : 멕시코 대통령 비서실

## □ 공항, 총 50억 달러 투입 예정

- 공항 인프라 구축의 주요 목적은 지역 허브공항 건설 및 공항 간 연계기능 강화와 관광지 공항 개발, 항공화물 특화 공항 개발 등임
- 2012년까지 구체적인 실천전략은 공항 신축 3건 및 확장

31건과 Valley of Mexico지역과 중앙부지역의 증가하는 항공 수요 해결, 항공화물수송 능력 50% 증대, 최소 50% 이상의 공항에서 세계수준의 서비스 실현 등이며 총 50억 달러의 예산(민관공동투자, PPP 사업 포함)을 계획하고 있음.

- 리비에라 마야(Riviera Maya) 신공항 건설이 진행 중에 있으며, 마르 데 코르테스(Mar de Cortes) 공항 확장 공사도 계획돼 총 약 8억 달러의 공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자료원 : 멕시코 대통령 비서실

## □ 전력, IPP 발전소 적극 추진

- 연방전력청(CFE)이 석탄 및 복합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등 다수의 신규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송전망과 변전시설 그리고 복합화력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 라인 공사 등 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있는 상태임.
- CFE는 신규로 추진될 사업들은 대부분 부족한 정부 예산을 감안하여 IPP 발전소와 민관공동투자(PPP)방식으로 추

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자 유치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FTA체결국에게만 주어졌던 입찰 제한 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최근 열린 한 포럼에서 멕시코 Kessel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30년 이내 총 10기의 원자로 건설 계획을 밝혔으며,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 비중을 총 전력 생산량의 35%까지 올리겠다고 밝힘

#### □ 정유시설, Clean Fuel 프로젝트 추진

- 멕시코 국영 석유 공사(PEMEX)는 정유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 단계의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되는 사업은 주로 Clean Fuel 정유시설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연방전력청(CFE)이 추진 중인 살라망카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추가 전력 확보를 통해 살라망카에 위치한 PEMEX의 정유시설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툴라(Tula) 지역에 Clean Fuel 정유시설을 신규로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
- 대외 부채가 수백억불에 달하는 PEMEX사는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현재까지 FTA체결국에만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추후 기술, 가격 등에 따라 발주 방법을 다변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PEMEX사가 '10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음.

<PEMEX의 향후 발주예정 프로젝트>

<단위 : 백만불>

프로젝트 명	목 적	소요 예산	발주 예정 시점
Gas Pipeline 8"x 7 km from Gas Lift Ring to Ixtoc-A Platform	가스 수송	50.0	10년 4분기
Gas Pipeline 24"x8.4 Km from Gas lift Ring to Ku-A2 Riser Platform	가스 수송	60.0	10년 2분기
Gas Pipeline 12"x7 Km from Kutz-TA to Kambesah	가스 수송	56.0	10년 4분기
Gas Pipeline 24" x 16 Km. Homol-A to Chuc-A	가스 수송	93.0	10년 2분기
GAs Pipeline Ku-A1 to Akal-C6	가스 수송	60.0	10년 2분기
Oil-Gas Pipeline 24" x 3.3 Km from Maloob-D to Maloob-A	Oil-Gas 수송	42.0	10년 4분기
Oil-Gas Pipeline 24" x 8.8 Km from Tsmin-A to May-A	Oil-Gas 수송	61.0	10년 4분기
Gas Pipeline 12" x 7 Km from Kutz-TA to Kambesah	가스 수송	56.0	10년 4분기
Tamazunchale-San Luis de la Paz-San Jose Iturbide Natural Gas Pipeline Project	기존 가스 수송 시설 정비 및 보강	632.0	10년 3분기
Diesel Phase of the Clean Fuel Project - 5 Refineries	초저 유황 디젤 생산	4,600.0	11년 2분기
Diesel Phase of the Clean Fuel Project - Cadereyta	Cadereyta 정유소의 초저유황 디젤 생산	1,000.0	10년 2분기
New Refinery in Tula	연료 수입 감소 초 저유황 디젤 생산	9,000.0	11년 3~4분기
Pipeline Maintenance : Pol A-Nohoch A - Cd. Pemex	수송시스템의 통합 등	1,169.9	10년 2분기
Reconfiguration of Salamanca Refinery	생산량 증대	2,600.0	11년 2~3분기